

안타·홈런 펑펑... 최형우, 감독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



FA 마지막 시즌 '4년 더' 프로젝트 감독 지휘하라 베테랑 먼저 워밍업 연습경기 3경기 연속 맹타

“긍정적인 마음으로 게임마다 최선 실력 안된다 판단되면 은퇴 안미뤄 ‘최형우 답게’ 야구 마무리 할 것”

KIA 타이거즈 최형우의 '4년 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최형우는 지난 2017년 FA계약을 맺으면서 고향팀 유니폼을 입었다. 올 시즌은 KIA와 약속된 마지막해다. 최형우에게는 끝이자 시작인 해이다. KIA와 계약 첫해 최형우는 '100억의 사나이'의 위엄을 보이면서 'V11'의 중심에 섰다. 지난 시즌 초반 부진은 있었지만 꾸준함의 대명사답게 묵묵히 시즌을 채워가면서 팀 중심타자로 역할을 해왔다. 성적은 물론 최형우는 행동으로도 팀의 중심타자다. 웬만한 부상자 아니면 그는 그라운드를 고집한다. 핑계 없는 최형우의 걸음은 후배들에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대형 FA의 모범이 된 최형우는 올 시즌이 끝나면 다시 FA 자격을 얻는다. FA 마지막 시즌을 앞둔 최형우는 "42살까지 야구를 하겠다"며 웃었다.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38살이 된 최형우가 일반적인 FA 계약을 다시 할 경우 마지막 해 나이가 42세다. 그만큼 올 시즌에 대한 각오와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4년을 이야기한 최형우는 플로리다 스프링캠프에서 '최형우 다운'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시작된 연습경기 첫 타석에서 안타로 몸을 푼 최형우는 23일 두 번째 경기에서는 1타점 2루타 포함 3안타를 쓸어 담았다. 하루 쉬고 다시 타석에 들어선 25일에는 시원하게 좌측담장을 넘기는 등 안타 두 개를 추가했다. 빠르고 강렬한 페이스다. 그동안 KIA의 베테랑들은 캠프 연습경기 막바지 실전에 들어갔다. 신예 선수들 위주로 먼저 경기를 풀어간 뒤 베테랑들은 천천히 워밍업을 하고 타석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번 캠프에서 베테랑들은 일찍 방망이를 예열하고 있다. 예년과 다른 흐름이지만 최형우는 완벽하게 준비를 끝내고 윌리엄스 감독을 웃게 하고 있다. 최형우는 "원래 베테랑들은 2월 말 정도에 들어가니까 경기는 빨리 시작한 편이다. 코치님들하고 상의해봤는데 감독님이 원하시니까 맞춰보라며 준비를 했다"고 언급했다. 너무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린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이다. 최형우는 "지금 좋은 게 낫다. 타격 페이스가 3월초에 내려가서 개막할 때 맞춰 다시 올라가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42살'을 이야기했지만 최형우에게 사실 시즌 목표는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최형우 답게' 당당하게 야구

길을 걷고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다. 최형우는 "내가 야구를 빨리 시작했으면 뭔가 기록을 갈아치우고 남기고 싶은 게 있었지만, 야구를 늦게 시작해서 그런 것은 없다"며 "42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욕심을 내서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할 만큼 열심히 해왔다. 더 오래 야구 잘하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만약 그렇게 안 되더라도 충분히 만족한다. 나는 최선을 다해왔다. 야구인생을 충분히 잘 살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큰 목표나 꿈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욕심이 없이 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좋은 사람들과 눈치 안 보고 야구를 해왔다. 인터뷰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지내서 후회는 없다. 잘 해왔다"며 "만약 내가 실력이 안 되거나 팀에서 밀려 선수들을 키워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 날 은퇴를 발표할 것 같다"고 웃었다.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고 했지만 바람은 있다. 후배들이 더 잘해서 팀이 잘되는 바람이다. 최형우는 "베테랑 대부분이 같은 마음이었지만 후배들이 더 잘해서 팀이 잘되면 좋겠다"며 "요즘에 후배들이 더 많이 물어보기도 한다. 그런 것을 보면 더 애정이 간다. 애들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팀을 지명한 '필승조'에 대한 시선에도 애정이 가득하다. 최형우는 "내가 야구를 하면서 한 팀에 좋은 투수가 4명이 한꺼번에 나온 것은 본 적이 없다. 선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4명이 한 번에 났다는 게 대단했다"며 "이들이 2-3년만 앞선 타탄한 마운드가 만들어진다. 올해, 내년이 중요하다. 이들이 잘해야 한다. 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wool@kwangju.co.kr

놀이인듯 놀이 아닌 놀이같은 훈련

맷 감독 '수비 우선' 지론... 중점 지도 '커피 내기' 송구 이어 '앉아서 받아' 훈련 선수들 포구하다 넘어지고 구르며 웃음꽃

KIA는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에 스프링캠프를 꾸리고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올 시즌 새로 팀을 맡은 맷 윌리엄스 감독은 바리그에서 378개의 홈런을 날린 특급 타자다. 힘으로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그지만 캠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비'다. 수비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맷 윌리엄스 감독은 워드마이어 수석코치와 직접 나서 선수들의 수비를 지도하고 있다.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동작의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선수들을 조련하고 있다. 수비를 강조하지만 코치진은 즐겁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들의 이해를 구하고 집중력을 높이고 있다. '커피 내기' 송구 훈련에 이어 25일에는 '앉아서 받아' 훈련이 눈길을 끌었다. 내야수들이 나란히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워드마이어 수석코치가 때려준 공을 받는 훈련이었다.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은 한정된 범위에서 팔을 뻗어가면서 공을 잡는데 집중했다. 필사적인 포구 노력을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구르기도 하면서 선수들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수비 훈련을 진행했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애스 테리 스포츠파크에서 포구 훈련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민상, 박민, 장영석. 수비 훈련 막바지에는 윌리엄스 감독까지 나서서 포구에서 가장 중요한 핸드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 포수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공을 받아야 하는 1루수 유민상은 "바운드가 뒤에서 잡는 것보다 앞에서 잡는 게 변화가 적다. 더 좋은 시야에서 공을 잡을 수 있어서 공

을 잘라서 잡으라고 연습한 것이다. 뒤에서 공을 잡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바운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앞에서 짧게 끊어서 잡는 게 유리하다"며 "또 앉아서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하면 팔만 부드럽게 느끼면서 할 수 있어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wool@kwangju.co.kr

류현진 '인기 폭발'

토론토 시범 경기장 팬 몰려 사인 요청

토론토 구단은 시범경기 홈 개막전을 맞아 경기 시작 3시간 전 팬들의 출입을 허용해 선수들과 접촉할 기회를 줬다. 많은 팬은 지정 구역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에게 자유롭게 사인 요청을 했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는 일본 출신 투수 아마구치 슌은 이례적으로 팬들에게 다가 사인을 해줬다. 이때였다. 한 현지 팬은 아마구치를 향해 "류현진 선수, 사인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류현진에게 사인을 받으려 다 야마구치를 류현진으로 착각한 것이다. 야마구치는 당황한 듯 어색한 웃음을 지은 뒤 클럽하우스로 이동했다. 이날 많은 팬은 류현진을 향해 "류-"라고 외치며 사인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토 구단은 경기장 내 기념품 가게를 처음 열었는데, 배번 99번이 새겨진 류현진의 유니폼을 가장 보기 쉬운 곳에 배치해 판매했다. 아직 첫 경기도 치르지 않은 이적 선수의 상품을 판매하는 건 이례적이다. /연합뉴스



김광현, 내일 ML 시범경기 두번째 등판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선발 투수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두 번째 등판에 나선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일간지 '세인트루이스 포스트 디스패치'는 김광현이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 로저 디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25일 전했다. 같은 날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리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방문 경기에는 김광현의 선발 경쟁 상대 중 한 명인 제네시스 카브레라가 선발 등판한다. 세인트루이스는 이날 2개 팀으로 나눠 시범경기를 치른다. 마이크 실트 감독은 "카브레라가 선발투수가 될 것 이란 의미는 아니다"라며 "우리는 선발 자리를 놓고 13명이 경쟁 중이다. 카브레라도 그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광현은 지난 23일 뉴욕 메츠를 상대로 시범경기 첫 등판에 나서 1이닝 동안 삼진 2개를 잡아냈다. 두 번째 등판에 나서는 김광현은 선발투수 역할 이기에 2이닝 이상을 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선발투수로 뛸길 원하는 김광현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다. 이날 경기는 마이애미 1루 코치가 트레이 힐만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기에 지난해까지 SK 에이스로 활약했던 김광현과의 흥미로운 '사제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격투기 재기 나선 추성훈

28일 싱가포르서 모하메드와 격돌

추성훈(45·일본명 야기야마 요시히로)이 259일 만에 종합격투기 재기전을 치른다. 추성훈은 오는 28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원 챔피언십 109번째 프라임 이벤트에서 메인 카드 제3경기(웰터급)로 셰리프 모하메드(이집트)와 맞붙는다. 추성훈은 지난해 6월 15일 원 챔피언십 중국 상하이대회 코메인이벤트에서 아가란 타니에게 심판 전원일치 판정패했다. 재기전 상대인 모하메드는 이집트 종합격투기 대회 '에볼루션 챔피언십' 웰터급 챔피언 출신이다. 추성훈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아프리카 선수와 대결한다. 모하메드는 종합격투기 9승(5패) 중 판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결정력이 좋은 선수라고 원챔피언십은 소개했다. 추성훈이 파이터로서 다시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에 한국과 일본이 주목하고 있다. /연합뉴스